

## 에스겔12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찌다 우리가 아버지께 고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율법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말씀이신 우리 주님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멋대로 살다가 저 불 못에 떨어 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시대에 살았더라도 우리는 저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인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예수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다시 한 번 그 안에 있는 은혜를 생각하며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아직도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코웃음을 치며 하품을 하며 졸리다 하며 길다 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깨워 주시옵시고, 정말이지 해가 바뀌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이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한 사람도 대 환란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권고하여 주시옵시고, 경책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뼈속 깊이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5장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가증함 때문에 전에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할 그 같은 일을 네 안에서 행하리라.

그리하여 네 가운데서 아버들이 그 아들들을 먹고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를 먹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네 안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가 너의 모든 남은 자들을 사면에 흘으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나니 내가 너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또한 반드시 너를 소멸시킬 것이요,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리라.

네 가운데서 삼분의 일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그들은 기근으로 네 가운데서 진멸되리라.

또 삼분의 일을 네 주위의 칼에 쓰러지리라. 또 내가 삼분의 일을 사면에 흠어버리고 그들을 쫓아 칼을 빼리라.

그리하여 내 화가 이루게 되리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있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위안 받게 되리라.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안에서 이루면 그들은 나, 주가 열심히 그것을 말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성냄과 분노와 열화 같은 책망으로 네게 심판을 행하면 그것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에게 질책과 조롱과 교훈과 놀라움이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보고 이 말씀에는 화와 모든 분노가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대 환란 때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결국 그렇게 되면 사방으로 흩어지죠, 실질적으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예요, 주전 606년부터 흩어졌죠, 특별히 기원 70년에 그 때 로마 디투스 장군 그가 왔을 때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졌죠, 머리카락이 날려 간 것처럼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레위기 26장에도 나왔잖아요,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아들들의 살과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레위기서 26장에서 어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왕기하 6장에 사마리아가 시리아에게 포위당했을 때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어제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읽었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마 대 환란 때도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기근이 오게 되면 먹고 살게 없으면 눈이 뒤집힙니다. 자식이 자식으로 안 보이는 모양 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배고프면 도리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 가면 배고픈 것을 한 번 경험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또 필요하니까 어디 가서 사 먹고 안 빼앗기려고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면서 먹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빼앗기니까, 서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기가 나오면 다른 사람 것이 더 커 보이구요,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별개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배가 고프면 말이죠, 사람이 눈이 뒤집혀요, 아무리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군대 오니까 똑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장교로 안가고 일부러 사병으로 갔어요, 이 세상을 좀 알아보려고, 아니나 다를까 배고파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치사 해 지더라고요, 그러니 대 환란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그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어린양의 피로 옷을 씻고 나오는 모든 족속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배고프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햇볕에 쬐이지 않고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고 주님께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도 대 환란에 넘어가서라도 깨달았으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환란에 넘어가서라도 깨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듣든지 그만 두든지 너는 얘기해라. 얘기해라 이 강단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말이죠, 옛날 강단은 나무 강단이었습니다. 나무 강단 나무로 된 강단, 왜 그러느냐? 십자가도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께서 메 달려 죽으신 곳이 나무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마다 저주 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 에스라가 귀환을 했을 때 나무강단에서 서서 분명히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을 읽으니까요, 율법을 읽기만 했는데 막 통곡이 터졌습니다. 그 때 음성도 들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그들이 포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구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통곡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말이죠, 이방 머느리를 삼았다가 다 쫓아 내 버리고 막 그렇게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주님의 수치와 오시기 전에 휴거되기 전에 이런 통곡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많이 모이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회개는 심령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것이 회개예요, 몇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제 부흥이죠,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있는게 부흥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 배운 거죠, 11절 보니까

네 모든 가증한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또한 반드시 너를 소멸시킬 것이요,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더럽혔는가? 말라기 선지자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400년 동안을 말씀 안 들으니까,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그 말씀 안 들으면 재앙이요, 들으면 축복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했어요.

4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천지가 병든자, 눈먼자, 찢쪽발이들 귀신 들린자들 꼭 찾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구요, 귀신 들리구요, 영적으로 찢쪽발이 되구요, 또 문둥병이 되구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 살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영적인 문둥병이고, 영적인 중풍병자는 한 쪽이 마비된 거야, 그저 의만 찾는데 공의를 모르는 거야, 찢쪽찢쪽거리면서 지팡이 잡고 다니면서,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그랬지만은 지금은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득 찾아요, 병자들이 가득 찾아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요 심지어 뱀도 있습니다. 교회에, 동물농장이 되었습니다. 염소로 볼 수있어야 되는데 사람만 많으면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던 말이죠, 말라기 1장 7,8절을 보면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을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네 총독에게 그것을 바쳐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외모로 받아들일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있는 것 중에 제일 눈 먼거 이런거 그거 가져왔다구요,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있을 것은 다 쓰고 드릴 것은 찢끄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누룩을 넣고 만든 빵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누룩 아련 건 죄거든요, 절대 누룩을 섞지 말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누룩은 뭘니까? 죄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거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럴 거예요, 찬양할 때 회개하자, 그러면 뭘 또 회개하나? 또 그런 사람있을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몰라요,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불평불만 하는 것을 회개할 줄도 몰라요, 완전히 이게 감각이 없어진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기가막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모르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선지자 이사야도 얘기했죠, 이사야서 66장 17절

스스로 거룩케 하는 자들과 동산 한가운데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케 하는 자들은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쥐를 잡아먹는 자들이니 그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척 하고 경건한 종교행위를 할지라도 종교인 행세를 할지라도 그 마음속이 더럽고 은밀한 행위, 사람이 안 보는데 하는 뒤에서 하는 은밀한 행위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죠, 또 얘기하지만은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요렇게 해 가지고 이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장막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분을 냈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죠, 이걸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소를 더럽힌 것은 부적절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것은 성전에 우상을 갖다놓았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갖다 놓았을까? 여러분 지금 카톨릭 가보세요, 우상을 갖다 놓았죠,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우상을 갖다 놓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우상을 갖다 놓을 수 있을까? 신약시대에 우상이 뭐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은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우상을 보면서 성령께서는 이 신약시대에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우리 역대하 33장 2~9절10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사람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와 아들이 다르더라구요, 다윗도 그렇고 다 각각입니다.

므낫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십이 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을 치리하였으나, 그가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의 가증한 것들을 본받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키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더라.

또 그가 주의 전 안에 제단들을 지었으니 이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하신 곳이라.

또 그가 주의 전의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상을 위한 제단들을 지었으며

그이 자녀들로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또 때를 살피며 마법을 쓰고 요술을 쓰며 부리는 영과 마법사들을 상대하여 주의 목전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을 격노케 하였더라.

또 그는 그가 만든 우상, 즉 새긴 형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을 위하여 정해진 땅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발을 다시는 옮기지 아니하리니, 만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모세의 손을 통해 준 모든 율법과 규례들과 율례들대로 주의하여 행하면 그리하리라.”하신 곳인데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잘못을 행하게 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인보다 더 나쁜 짓을 행하게 하였더라.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까요? 탐심이란 것은 내 몸을 위한 것이 거든요, 내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이미 죽었거든요, 우린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게 우상숭배입니다. 요즘에 ,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못 깨달아요,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교회 앉아 있으니까 교회에 우상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강단부터 마찬 가지예요, 이런 때가 되었어요, 이것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우상에 대한 문제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닫고 명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탈이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다. 우리 한 번 골로새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앞에 있는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색욕, 이것도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린 죽었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좀비 같다고 그랬어요, 좀비는 죽은 시체가 걸어 다닌다고 그랬죠, 몸은 죽었어요, 우리 몸은 죽은 시체로 여겨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이 내 몸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사도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그랬어요, 자꾸 뭐가 살아나면 나는 매일 죽노라고,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못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수님 얘기했죠, 하나님을 찾는 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자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는다. 영이 뭐죠? 육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영 안에서 진리를 두렵고 떨리므로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사

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죠. 개역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은 죽었고 몸이 살아 있는 사람이예요, Brethren church (향제교회)있죠? 그 교회에 속한 한국 목사님이 그러는데 거기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앉게 해요 헌금도 안 돌려요 자녀들의 헌금만 받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게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해요, 거기 사람에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노인들 밖에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 그 뭐 의무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섬김과 예배는 이미 더럽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새 예배당에 가보니까 비록 작지만 아늑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같은 불도가니에 들어가기만 하면 회개가 터지는 그 장소!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열세평밖에 안 되니까 얼마든지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더럽혀진 섬김과 예배를 가증스러운거, 혐오스러운거, 이렇게 간주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 그런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너를 외모로 보시겠느냐? 절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않죠, 그 속을 보죠, 속을 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겉으로는 젊잖은 척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올 때는 뒤로 돌려 버리고 졸리기도 하구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누가 젊잖아요, 젊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신집사! 요즘 먹고 살기 좋으니까 조~는 거지? 이랬어요, 요즘 그렇게 얘기했다간 다 도망가죠, 이렇게 말씀에 떨었습니다. 그 때 신집사라는 분은 대림산업 부회장 부인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더 막 치는 거요, 왜? 타락할 까봐, 그 때 목사님께서서는 두루마기 입고 머리는 다 깎았어요, 시간 낭비할 까봐, 새벽기도 끝나면 동굴에 들어 가셨습니다. 참 그런 분들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한 동회 목사 그 분은 잘 생겼

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은 분인데 성령을 받아 버리니까 머리 뻑뻑 깎아 버리고 시골 교회갔어요. 부산에 있다가. 양복입고 있던 분이 두루마기로 바꿔 입고요, 설교 할 때면 가만 안 있어요, 발을 구르고요, 왔다 갔다하면서, 이래 가지고 안 된다고, 내가 앞에 앉았는데 그 분이 막 너무나 그러니까 침이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고였다가 한 번 탁 튀깁니다. 그 침을 몇 번 맞아봤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시골로 들어 갔어요. 저 시골로 두메산골로 들어갔어요, 아들 둘인데, 너무나 고생하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가만 보니까 40대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들이 조금그만한데, 우리 매부가 장로님인데 그 매부가 미국 살면서 한달에 천불씩 보내 줘가지고 그 아들도 다 교육시켰어요, 아직도 그 분 기억이나요, 속으로 저렇게 잘 생긴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그 일에 코웃음을 쳤도다. 말라기서 1장 13절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하며, 그 일에 코웃음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너희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제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코웃음을 친데요 말씀이면 다냐? 말씀이 밥 먹여 주냐? 뭐 말씀, 말씀 그러냐? 말씀이 글자로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인줄 몰라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보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안해요, 성경공부가 뭐 지식을 넣어 주는 줄 알아요, 성경공부는 지식을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들어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한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보니까 다시 말라기서 1장 14절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자들 어떻게 한다? 1장 14절 다시 가 보면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 서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기 때문이라.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저주를 몰라요, 저주라는 것은 먼저 영적으로 저주를 받아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하품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준지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좋은 밥 먹고 좋은 집 살고 이러면 이게 축복인줄 알아요, 그게 저준지 몰라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가 궁핍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로다. 천사에게, 라 오디게아 교회 천사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부요하다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로다, 별거벗은 수치를 모르느냐? 눈이 멀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거꾸로 듣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짖지만요 하나님은 더 부르짖어요, 사실. 더 부르짖어요, 사람들은 안 될 때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원 찾아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더 부르짖어요, 예레미야서 15장 5,6절 보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누가 너에게 동정을 베풀며 누가 너를 애도하며 누가 네 안부를 물으려고 가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뒤로 물러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리라.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도다.

하나님이 지쳤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과 저주와 축복을 두었다.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다 줬어요, 문제는 자신이 생명을 안 택해서 그렇지 다 줬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이 지친 거예요. 지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화가 나면 포도주들을 밟는 것처럼 혼자 밟겠다. 그 심정을 모른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내려와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효자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효자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에스겔로 다시 돌아가서 14절을 보겠습니다. 5장14절

또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이 되게 이미 만들었었죠,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러나 그들이 범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없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남은 자들,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 천 년 동안 죽었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극소수 남은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나무를 베어 버렸죠, 그루터기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싹 베어버리면 그루터기에서 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름떼처럼 사람이 많아요 진짜 거듭나고 신부되고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이방인 가운데 서도 환란 때 들어 갈 사람 추리고, 추리고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을 다 모으고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게 바로 양 민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세 가지의 부류가 있죠,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민족이요, 이방인들은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 부류가 되는 건데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6천년동안 추려 가지고 마침내 휴거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요, 주님만을 찾는 사람들, 그렇죠,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휴거되려면, 첫째 뭐, 둘째 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 속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성령 안에 있는 거죠, 몸은 죽었으니까 다시 천년 왕국이 열릴 때 이스라엘은 세계 중심에 그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계 배꼽이라고 그러죠? 왜 배꼽이라고 그러니까, 배꼽이 사람 중심이 있어요, 범죄 하니까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비방거리, 지금도 비방거리 되어 있잖습니까, 여러분. 비방거리죠, 유대인, 그러면 저 욕심 많은 사람들 그러죠, 다투는 놈들, 법정에서 아파트주인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아파트가 비가 새는데 안 고쳐 주는데 그런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있다가 왜 안 고쳐 줬어? 그러니 아 임 쥬(I'm Jew)! 그러더라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TV 보는 사람들 말이지 법정에서 TV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 나쁜 놈들 말

이야, 아주 웃으면서 그래요, 아임 쥬!~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벌금이 나오니까 할 수없이 고치는 거지, 야 그러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나 진짜 유대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일 꺼 예요. 그 때 보면 이방인들이 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롱을.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29장18절19절 보겠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경고를 했어요, 29장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민족가운데서 저주와 놀람과 경멸과 모욕이 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일찍 일어나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यो,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은 정말 용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 많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봤냐? 이러구 말이죠, 담대합니다. 담대한 게 아니고 무식한 거죠, 그들은 절구통에 아무리 넣어 찧어도 안 깨어진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지요, 2천년 동안 모든 민족 가운데 저주와 경멸과 모욕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저주와 놀람과 모욕을 상기해 보세요, 지금도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 비참합니다. 그러니 대 환란 때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게 BC 606년 이거던요, 그 때부터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 일 동안 그래도 안 돼 몇 년 동안 그래도 안 돼 수 천 년을 그래야만 그래도 깨달을까해요, 오죽하면 나사로를 나흘 동안 썩어 냄새가 날 때에, 나는 부활ियो,

생명이다. 나흘 동안 섞어 폭폭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예수그리스도를, 그래서 나흘이 되도록 기다린 거죠, 나사로야 불렀죠, 일어났죠, 앞으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돼서 도중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가 끝까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이렇게 새벽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들을 때 마다 왜 예수께서 처절하게 죽어야만 했는지 우리가 죽을 자리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처절히 칼에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다 깨닫게 되며 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코웃음을 치며 하품을 하며 조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지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저들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